『영미연구』
제68집 (2026): 73-97
http://doi.org/10.25093/ibas.2026.68.73

중세 로맨스 문학에 나타난 여성과 마법에 대한 고찰: 여성의 리터러시와 자연 마법을 중심으로*

윤 주 옥
단독 / 연세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서양 중세 사회가 마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마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과 관점 등을 가졌는지 문화사적, 지성사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 그 고찰에 기반하여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으로 쓰인 다수의 중세 로맨스/로망스 작품이 리터러시를 보유한 여성을 마법과 어떻게 연결 짓는가를 탐구해 본다. 본 연구의 초점은 마법을 사용하는 모든 여성 인물이 아니라 문자 능력을 보유하고 플롯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에 있다. 우선, 작품 속에서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마법을 습득하는가를 살펴본다. 여성들은 마법을 비밀스럽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나 "7과목"으로 예시되는 중세의 인문과학의 교육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다음으로, 여성 인물들이 어떤 종류의 마법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살펴본다. 배우자나 연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여성도 있지만, 다수의 여성은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과 소중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법을 사용한다. 그녀들이 사용하는 마법은 대부분 동·식물과 광물의 숨겨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7013211)

진 능력을 사용하는 자연 마법에 해당하며, 자연 마법을 부정적인 주술과 구별짓는 것은 마법의 종류나 방법이 아니라 마법을 사용하는 목적과 의도에 있다.

주제어: 중세 로맨스/로망스, 리터러시, 여성, 자연 마법, 중세 교육

1. 들어가는 말

이단(heresy)과 마법을 포함한 서양 중세의 종교 현상을 연구한 저명한 역사가 제프리 러셀(Jeffrey B. Russell)이 주장하듯이, 마법은 종교 그리고 과학의 영역과 겹치면서 동시에 이들 분야와는 독립된 세계관으로서 인류사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4-5). 신적 존재 혹은 우주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종교와는 달리, 그 힘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때로는 강제해서(Russell 12)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마법이 오래전부터 문학의 소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Homer)가 기원전 8세기에 쓴 대서사시 『오디세이아』(*Odyssey*) 10권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섬에 도착한 오디세우스의 신하들에게 마법의 물약이 가미된 음식을 먹여서 돼지로 변하게 만드는 강력한 여성 마법사 키르케(Circe)가 등장한다.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 신이 준 흰 꽃에 검은 뿌리를 한 산마늘과의 마법 약초 덕분에 키르케의 마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녀의 마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르길리우스(Virgil), 호라티우스(Horace), 루카누스(Lucan), 플라톤주의자 아풀레이우스(Apuleius of Madura) 역시 마법 모티브를 사용한 고전 작가들이다(Kieckhefer 31-32).

마법에 대한 높은 관심은 중세 문학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마법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대표적인 중세 작가로는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를 들 수 있다. 초서는 『명예의 전당』(*The House of Fame*, 1259-66행)에서 중세에 마법사로 간주되었던 다양한 직업들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는 말재간이나 손재주로 환

상이나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jugelours,” “magiciens,” “tregetours,” 주문(spell)을 외우고 죽은 자의 영(spirits) 혹은 악마를 소환하는 “phitonesses,” “charmeresses,” “wicches,” “sorceresses,” 그리고 중세 자연 철학(natural philosophy)의 한 분야인 자연 마법(“magik naturel”)을 탐구하는 학자들(“clerkes”)이 포함된다. 마법에 대한 초서의 관심은 그의 대표작인 『캔터베리 이야기』의 여러 이야기에서도 반복된다. 특히 의학(medicine), 점성술(학)(astrology), 연금술(alchemy)로 예시되는 자연 마법 모티브가 「총서시」(“The General Prologue”), 「방앗간 주인 이야기」(“The Miller’s Tale”), 「시골 유지 이야기」(“The Franklin’s Tale”), 「수녀원 신부 이야기」(“The Nun’s Priest’s Tale”), 「성당 참사원의 자작농 이야기」(“The Canon’s Yeoman’s Tale”) 등에서도 계속 발견되는 점은 12세기경부터 아랍에서 들여온 신학문인 자연 마법에 대한 초서의 특별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중세 문학 장르 중에서 마법 모티브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르는 단연코 로맨스이다. 코린 손덜스(Corinne Saunders)가 지적하듯이, 중세 중·후기에 쓰인 많은 로맨스 작품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에피소드들은 거의 대부분 초자연적인 요소와 더불어 마법이 관련된다(*Magic* 2). 이는 중세의 대표적인 대중문학인 로맨스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로맨스는 익숙한 일상과는 다른 낯설고 이국적이면서도 신기한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청중/독자에게 “즐거움”과 “오락거리”를 제공하는데(McDonald 2; Saunders, *Magic* 1-2), 마법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훌륭한 내러티브 장치로서 기능한다. 리차드 허드(Richard Hurd, Fradenburg 31 재인용)와 에리히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 138)로 대표되는 일부 초기 비평가들은, 마법이 중세 로맨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현상이 로맨스가 열등한 문학이라는 증거이자 로맨스가 “현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회피하고 “현혹적인 허구”를 추구하는 증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중세 로맨스의 장르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며, 초서가 『명예의 전당』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법이 중세 유럽에서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엄연히 “현실”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로맨스 장르가 내러티브 장치로써 마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과 함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런 마법을 조달하는 이들이 많은 경우 높은 문자 교육을 받은 상류층 여성들이고(Sweeney 27; Saunders, *Magic*), 그녀들이 사용하는 마법이 대부분 중세 지식인들이 학문의 영역으로 간주한 자연 마법이라는 점이다. 수전 크레인(Susan Crane), 조앤 페란트(Joan Ferrante), 일레인 한센(Elaine T. Hansen)을 포함한 다수의 저명한 중세 문학 연구자들이 로맨스 속 여성과 마법을 연결지어 분석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로맨스가 생산된 중세 중·후기 유럽의 지적 환경과 당대 여성의 문자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현대적인 젠더 연구의 틀로 여성 인물들의 마법을 해석하여 그녀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성격과 역할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표출한다. 예들 들어, 크레인은 로맨스 속 마법을 "남성적 마법"과 "여성적 마법"으로 구분하고, 남성적 마법은 남성 식자들이 사용한 지식이자 기술이고 남성 인물에게 자율성과 완전함을 부여하는 반면, 여성적 마법은 학습되기보다는 물려받는 마법이고 좀 더 비술적(occulted)이고 기묘(uncanny)해서 정의하기 애매하고 위험하며 주로 여성 인물들이 이성과의 친밀함이나 쾌락을 추구하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Crane 133, 136, 137, 150). 하지만, 크레인이 분류한 "남성적 마법"의 특징들이 실제로는 로맨스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이 사용하는 마법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크레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자들이 간과한 이러한 지점들에 천착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여성의 리터러시와 마법의 관계를 중세 로맨스 문학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의 초점은 마법을 사용하는 모든 여성 인물이 아니라 문자 능력을 보유하고 플롯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에 있다. 우선, 작품 속에서 여성 인물들이 어떻게 마법을 습득하는가를 살펴본다. 크레인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들은 마법을 비밀스럽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학문"(the arts)이나 "7과목"으로 예시되는 중세의 인문과학(liberal arts)의 교육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다음으로, 여성 인물들이 어떤 종류의 마법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살펴본다. 배우자나 연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여성도 있지만, 많은 여성은 타인의 상처를 치유

하고 자신과 소중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법을 사용한다. 그녀들이 사용하는 마법은 대부분 동·식물과 광물의 숨겨진 능력을 사용하는 자연 마법에 해당하며, 혼령을 불러내거나 악마와 거래를 하는 파우스트적인(Faustian)인 악마 마법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 서양 중세의 마법과 자연 마법

이 장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앞서 먼저 서양 중세 마법의 개념과 특징, 이론과 실제 등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 필요한 지적, 문화사적 콘텍스트를 마련한다. 서양 중세의 마법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중세 마법이 고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켈트와 게르만,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로부터 유입되었고, 범주에 있어서도 종교와 (과학과 의학을 포함하는) 자연 철학, 일반 대중의 경험과 엘리트 지식인의 학문, 일상과 허구가 교차하거나 접점을 이루는 대단히 다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Kieckhefer 1-2; Russell 8; Saunders, *Magic* 4; Crane 132). 더불어 마법은 직업적인 마법사가 행하는 것이라는 오늘날의 일반화된 관념과는 달리, 중세 마법의 경우 수도사, 교구 사제, 내·외과의, 산파, 이발사, 민간 치료사, 점쟁이, 심지어 우연한 기회로 마법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까지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 스펙트럼도 매우 넓다(Kieckhefer 117).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적어도 공식적으로 중세 교회는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기적(miracle)과는 달리, 모든 마법은 그것이 선의든 악의든 악마가 개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법을 이교도와 이단의 것으로 규정하면서 거부했다(Kieckhefer 36-39, 84-88; Russell 6-13). 4, 5세기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에 의해 시작되어 6, 7세기에 세비야의 이시도루스(Isidore of Serville)가 계승한 초기 교부들의 마법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12세기 토머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로저 베이컨(Roger Bacon)으로 이어졌다(Kieckhefer 10-12). 그런데, 이 엘리트 기독

교 지식인들 대부분이 별과 행성의 영향으로 생기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었고, 동·식물과 광물로 예시되는 자연에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신비로운 힘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Kieckhefer 12, 38-39; Saunders, *Magic* 102). 그들이 인정한 초자연적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힘은 후대에 자연 마법에서 핵심이 된다.

13세기경에 중세 마법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당대 서유럽의 지성사적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 12세기에 아랍 문화권을 통해 서유럽으로 점성술, 연금술, 의학을 포함한 자연 마법과 연관된 분야들을 아우르는 초자연적인 자연 과학 개념이 유입되었다. 13세기에 이르면 그런 신지식이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모든 마법은 악마가 개입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재고하게 된다(Kieckhefer 12, 17-18; Saunders, *Magic* 4). 중세의 마법을 연구한 역사가 리처드 킥헤퍼(Richard Kieckhefer)는 13세기 유럽에서 마법 관련하여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자연 마법을 악마가 개입하는 마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마법으로 인식하는 오베르뉴의 기욤(William of Auvergne)이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 the Great) 같은 지식인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마법이 점술(divination)뿐만 아니라 치유(healing) 같은 기능을 일컫는 의료 용어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이다(Kieckhefer 12).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이제 마법, 적어도 자연 마법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서와 같이 자연 철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으면서 좀 더 긍정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고(Saunders, *Magic* 4), 14, 15세기에 이르면 자연 마법이 학문 마법으로서 서유럽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다(Kieckhefer 12).

자연 마법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로맨스/로망스 작품들 속 여성 인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법이므로 그 특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세 영어로 "magik naturel"에 해당하는 자연 마법은 자연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말은 자연 마법이 잘 알려진 자연의 힘이 아니라 숨겨진 자연의 힘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중세 영어 사전』(*Middle English Dictionary, MED*)이 "magik" 단어의 첫 번째 정의로 이러한 자연 마법의 의미를 사용한다("magik n. 1. a")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식물과 동물의 능력이나 특정 종류의 불행을 막는 광물

의 능력은 그 물체의 내적인 속성이나 구조가 아니라 별과 행성으로 예시되는 우주의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유래하며,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에 관한 과학이 자연 마법에 해당했다(Kieckhefer 12-13; Saunders, *Magic* 4-5, 150). 의학, 점성술, 연금술 등이 자연 마법에 해당했는데, 그중에서도 의학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명망이 높은 자연 마법 분야로 간주되었다(Saunders, *Magic* 101).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비밀을 문자 능력을 소유한 지식인들이 문헌 연구를 통해 전했다는 점에서 자연 마법은 근본적으로 학문 마법(learned magic)이었으며(Saunders, *Magic* 99), 로맨스/로망스 작품들이 자연 마법을 다루는 식자 여성들을 그리는 현상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세의 자연 마법은 주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징적 유사성"을 따르는 "공감 마법"(sympathetic magic)이나 그 반대인 "상극"(antipathy)의 원리를 따랐다(Kieckhefer 13). 예를 들어, 사슴 가죽으로 싼 독수리의 두개골이 두통에 효과가 있다거나, 드라콘티움(dracontium)이라는 약초가 용을 닮아서 뱀에 물린 상처에 효과가 있다는 식이었다(Kieckhefer 13, 66). 12세기에 수녀원장이자 본초가였던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도 라틴어로 저술한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원리를 따르는 치유법을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농인(聾人)의 귀에 사자의 오른쪽 귀를 잘라서 그것이 따뜻해질 때까지 대고 있으면 청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Metzler 25-26에서 재인용). 뿌리가 사람의 모습을 한 맨드레이크(mandrake) 같은 식물, 독수리와 사자 같은 동물, 그리고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같은 특정한 광물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 혹은 이론의 근원은, 아랍 문화권을 통해 전래된 아리스토텔레스, 갈레노스(Galen), 디오스코리데스(Dioscorides) 등의 고전 저자들이었다(Saunders, *Magic* 101-02).

자연의 불가사의한 힘을 사용하는 자연 마법은 중세에는 본질적으로 과학의 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초에 대한 지식에 기독교의 기도문을 가미하거나 마법적 능력을 가진 광물에 주문(spell)을 새겨 넣음으로써 과학과 종교가 섞이는 경우가 빈번했다(Kieckhefer 1, 102). 또한 자연 마법의 한 갈래로서 합법적 마법으로 인정—

혹은 묵인—을 받은 의료 마법의 기법과 불법적인 주술(sorcery)의 기법이 자주 겹쳤고, 수도자나 사제들이 평신도들로부터 마법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서 배우고, 역으로 평신도들은 그들로부터 치유 주문을 배우는 경우도 많았다(Kieckhefer 56-57, 81-82; Tasioulas 186; Saunders, *Magic* 101). 중세 마법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magic, enchantment, sorcery, witchcraft, necromancy, medicine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처럼 여러 영역을 넘나들었던 중세 마법의 경계 짓기 어려움, 혹은 "모호함"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하겠다(Saunders, *Magic* 6-7).

3. 마법의 전제 조건으로서 리터러시와 교육: 모르간 르 페이와 멜리오르

중세 중·후기의 여러 로맨스/로망스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당수의 여성 인물들이 마법을 사용하며, 그들에게 리터러시, 즉 문자 능력은 마법을 습득하기 위한 본질적인 전제 조건이다(Larrington 14). 이 장에서는 로맨스 텍스트 속 여성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하여 마법을 습득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13세기 초에 고프랑스어로 쓰인 아서 왕 로망스인 『멀린 이야기』(*Estoire de Merlin/The Story of Merlin*) 속 모르간 르 페이(Morgan le Fay)와 15세기 중반(c.1450)에 중세 영어로 쓰인 로맨스 『블루아의 파르토놉』(*Partonope of Blois*)의 여주인공 멜리오르(Melior)가 그들이다.

서양 중세사가인 마이클 섕크(Michael H. Shank)에 따르면, 중세 인문과학은 로마식 교육에서 유래한 일곱 과목인 3학(trivium) 4과(quadrivisum),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산술학, 기하학, 천문학/점성학, 음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기본 인문과학을 공부해야 상위 학문인 법학, 의학,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209, 219). 모르간과 멜리오르, 이 두 여성은 인문과학에 속하는 이들 과목을 일부 혹은 전부 학습한 다음, 의학이나 신학 등으로 나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여성이 자연 마법에 해당하는 의학에 능통했고, 교육의 최종 단계로 "Necromancy" 혹은 "Nygromancy"를 학습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두 여성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르간의 교육이 수녀원에서 읽고 쓰는 법부터 시작되었다면, 비잔틴 제국 황제의 딸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멜리오르는 백 명이 넘는 "위대한 학자들"(grette clerkes)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았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2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여성 지식인인 엘로이즈(Heloise)와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이 이 두 형태의 교육을 받았다(Ranft 44-45; Strehlow and Hertzka 140). 이 두 여성은 13세기 초에 서유럽에 대학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이미 대학 교육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학식을 쌓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윤주옥, 「중세 문학에 나타난 치유자로서 여성 지식인」 29).

먼저 살펴볼 인물은 『멀린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르간 르 페이이다. 모르간은 12세기 중엽(c. 1148-c.1155)에 몬머스의 제프리(Geoffrey of Monmouth)라는 사제이자 연대기 작가가 라틴어로 쓴 『멀린의 삶』(*Vita Merlini)*을 통해 본격 중세 아서 왕 문학에 데뷔했다. 이 작품에서 "모르겐"(Morgen)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모르간은 아서 왕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그녀는 캄브람(Camblam)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아발론(Avalon) 섬으로 실려 온 아서를 치유할 능력을 갖춘 의사이자 자매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모습을 바꾸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인간보다는 신에 가까운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제프리가 12세기 중엽에 시작한 명의(名醫)로서 모르간의 유산은 12세기 후반에 크레티앵 드 트루아(Chrétien de Troyes)가 고프랑스어로 쓴 로망스인 『에렉과 에니드』(*Erec et Enide)*와 『이뱅』(*Yvain*)에서도 이어진다. 『에렉과 에니드』에서 모르간은 심하게 부상당한 에렉 경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연고를 제조한 인물이고(*Erec et Enide 89)*, 『이뱅』에서는 "현자 모르간"(Morgan the Wise)으로서 이뱅 경의 광증을 완치하는 연고를 제조한 인물로 그려진다(Yvain 332-33). 제프리에서 크레티앵에 이르기까지 모르간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그려지며, 이들 작가는 아직 모르간을 인간이 사용하는 마법과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는다.

하지만 『멀린 이야기』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13세기 초반인 1215년에서 1235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아서 왕과 랜슬롯 경을 포함하는 원탁의 기사, 그리고 성배 서사를 포함하는 다섯 편의 산문 로망스가 쓰이는데, 이들 작자 미상의 로망스 작품을

일러 『랑슬로·성배 연작』(*Lancelot-Grail Cycle* 또는 Vulgate Cycle)이라 부른다. 이 다섯 편의 로망스 중 한편인 『멀린 이야기』가 쓰인 시기는 다른 작품들보다 늦지만, 이 작품은 내용상으로 볼 때 아서 왕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해당한다(Lacy v, vii). 즉 『멀린 이야기』는 아서 왕의 수태와 탄생, 돌에서 칼을 뽑아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 에피소드, 귀네비어와의 혼인과 원탁 형성, 색슨족의 침입으로부터 브리튼을 구하는 내용 등 아서 왕 문학의 토대를 구성하는 서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멀린 이야기』에서 모르간은 잉글랜드 왕 우서 펜드라곤(Uther Pendragon)의 의붓딸로 그려진다. 원래 모르간은 우서의 동맹이었던 틴타겔(Tintagel) 공작이 아내 이그레인(Ygraine)과의 사이에 둔 두 딸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이그레인의 미모에 반한 우서가 마법사 멀린의 도움으로 틴타겔 공작의 모습으로 이그레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아서가 잉태된다. 이러한 사연으로 모르간은 아서 왕의 누이가 된다. 공작이 사망하면서 우서는 이그레인을 왕비로 맞이하고, 우서는 이그레인의 이름 없는 첫째 딸을 롯 왕(King Lot)과 혼인시키고, 둘째 딸인 모르간을 갈롯의 왕 뉴트르(King Neutres of Garlot)와 혼인시킨다. 그런데 뉴트르 왕은 친지들의 조언에 따라 모르간이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수녀원에 보냈다고 한다(82). 이는 말 그대로 혼인할 당시 모르간이 정말로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글을 배우기에 모르간이 아직 어린 여자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모르간의 양육과 교육을 수녀들에게 위탁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중세 귀족들이 비서나 필사가를 통해 글을 "읽혀 듣거나" "받아쓰게" 했으며(윤주옥, 「중세 여성의 문자 생활」 203; 피셔 187-89), 이런 문자 문화에서 중세의 많은 귀족 여성들이 문맹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모르간이 정말로 문맹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적이다.

수녀원에 보내진 모르간은 교육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 그녀는 남편 뉴트르 왕이 본래 의도했던 읽고 쓰는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학문도 잘 배워서 그것들에 통달한다. 특히 점성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고, 끊임없이 공부하여 치유하는 기술(healing arts), 즉 의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 화자는 지속적으로 모르간이 매우 영리하고 경이로울 정도로 학식이 깊은 여성임

을 강조한다(273, 362)[1]. 그녀가 소유한 이런 다양한 지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를 "요정 모르간"(Morgan the Fay)이라 부르게 된다(82, 362). 신적인 존재에 비유되는 이 타이틀은 모르간의 타고난 영민함과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모르간이 수녀원에서 학문으로 시작한 점성술은 마법사 멀린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magic"과 "necromancy"(273, 363)를 포함하는 경이로운 차원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잉글랜드 우서 왕의 의붓딸이자 뉴트르 왕의 왕비인 모르간은 수녀원에서 먼저 읽고 쓰는 문자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문자 능력에 기반하여 점성학, 의학, 그리고 마법까지 익히게 된다.

모르간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블루아의 파르토놉』의 여주인공 멜리오르 역시 모르간과 비슷한 교육 과정을 통해 마법(necromancy)으로까지 나아간다. 전반적으로 이 로맨스는 멜리오르가 받은 교육을『멀린 이야기』에서 모르간이 받은 교육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밝힌다. 1만 2천 행이 넘는 이 로맨스는 아마도 현존하는 중세 로맨스 중에서 가장 긴 작품 중 한 편에 해당할 것이다. 이 작품의 남자주인공인 파르토놉은 프랑스 왕의 조카이자 앞으로 앙주(Anjou)와 블루아(Blois)의 백작이 될 앞날이 창창한 열여덟 살의 미남 기사이다. 이런 파르토놉을 배우자감으로 낙점하고 마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비잔틴 제국으로 이끄는 이가 바로 여주인공 멜리오르이다. 현존하는 서양 중세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에서 멜리오르는 아마도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에 해당할 것이다(윤주옥,「중세 문학에 나타난 치유자로서 여성 지식인」35).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부친은 저를 제외하고 다른 후계자가 없었어요.
> 그래서...
> 일찍부터 저를 교육받게 하시려고
>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와서
> 저에게 학문과 깊은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셨죠.
> 제가 왕국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 저에게는 백 명도 넘는 스승들이 있었어요.

저는 일곱 개[2]의 과목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그다음 약초와 그것들의 효능에 대해서
[…]
모든 약재를 막힘없이,
그것들이 의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익혔어요.
그래서 저는 병든 이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다음 저는 삼위일체의 위격[3]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배웠어요.
그때 제 나이가 열다섯 살이었고,
저는 모든 일곱 과목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제 스승들을 능가했어요.
그다음 저는 마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비술적 기법을 익히고자
주문술을 공부했어요.
[…]
황제께서 제 마법을 보고자 하실 때
저와 제 스승들은 황제의 명에 따라
마법을 펼쳐 보이고는 했는데,
그걸로 인해 많은 이들의 눈이 멀기도 했어요.

My ffader hadde no eyre but me.
[…]
And grette clerkes a-none lette ffette
To lerne me clergy and grette wydsome,
And þat I myghte þe better gouerne þe kyngdome.
A c. mastres I had and mo.
[…]
Þat þe vij. sciens I cowde parfyghtly.
And after þat þen lerned I
To knowe þe Erbe and here vertu,
[…]

All maner of spyces I knewe by rote,
Howe in phisike þey haue here worchynge.
The seke in-to hele I can well brynge.
After þys I lerned Diuinite,
To knowe þe personys of þe trinite.
By þen I was xv. yere of age,
My masters, þat were boþe wyse and sage,
In alle the vij. artys I dyd hem passe.
Then to Nygromancy sette I was,
Then I lerned Enchawntemente[s],
To knowe þe crafte of experimente[s].
[…]
...when hyt lyked þe Emperowre
To se my craffte....
...þen wolde I
And my mastres at hys commawndemente,
Pley craftes þorowe wych mony man was blynte (lines 5904-45)[4]

인용문에서 멜리오르가 밝히듯이, 비잔틴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인 멜리오르가 학문을 쌓아 왕국을 잘 다스리기 바랐던 부황은 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다. 멜리오르는 백 명이 넘는 학자들로부터 일곱 개의 기초 인문과학을 배웠는데, 이미 열다섯 살에 이들 분야에서 스승들을 능가할 정도의 영재였다. 인문과학 일곱 과목을 완벽하게 통달한 멜리오르는 다음으로 상급 학문인 의학과 신학을 학습했고, 마지막 단계로 마법을 배웠다. 초자연적인 비술들을 익히고자 부황의 허락하에 스승들로부터 마법을 배웠다고 한다. 필자가 "마법"으로 번역한 "Nygromancy"는 일반적으로 혼령과 대화하거나 악령의 힘을 이용하는 강령술로 번역된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통해서 멜리오르가 그런 강령술을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본 연구자가 다른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멜리오르가 마법을 통해서 주로 마법의 숫돼지나 마법의 배 등 주로 초자연적인 환상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리고 멜리오르가 쓰는 마법에 대해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녀가 학습한 “Nygromancy”는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습득한 자연 마법(natural magic)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윤주옥, 「중세 문학에 나타난 치유자로서 여성 지식인」 34-35).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듯이, 자연 마법과 강령술과 같은 흑마술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법의 종류가 아니라 그 마법을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에 있기 때문이다.

4. 자연 마법과 “nigromancy/necromancy” 사이: 조시안과 브론드

손덜스가 주장하듯이, 중세 로맨스에서 초점이 되는 마법은 자연 마법이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nigromancy/necromancy”와 자연 마법의 차이는 마법의 종류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에 있었다(*Magic* 6-7, 155). “nigromancy/necromancy”의 어원적, 혹은 사전적 의미, 즉 죽은 자를 소환하여 미래를 점치는 경우는, 중세 독일어로 쓰인 『에레크』(*Erec)*와 같이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로맨스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로맨스 속 “nigromancy/necromancy”는 자연 마법의 한 부류 혹은 그것의 오남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Saunders, *Magic* 159). 이 장에서는 로맨스의 여성 인물들이 자연 마법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는데, 14초 반 중세 영어로 쓰인 로맨스 『햄튼의 베비스』(*Bevis of Hamtoun*)의 여주인공 조시안(Josian)과 14세기 중반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팔레르모의 윌리엄』(*William of Parlerne*)의 브론드(Braunde)를 살펴본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조시안이다. 『햄튼의 베비스』는 13세기 초반에 앵글로-노르만어로 존재하던 동명의 로망스를 14세기경에 중세 영어로 옮긴 로맨스이다(Dunn 25). 작품의 남자주인공인 베비스는 잉글랜드 사우샘프턴(Southampton) 백작과 스코틀랜드 왕의 딸인 백작 부인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다. 하지만 백작은 연인과 공모한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들인 베비스는 이교도 나라인 아르메니아

("Ermonie"/Armenida)로 팔려간다. 베비스는 아르메니아 왕의 궁정에서 말을 돌보며 기사로 성장하는데, 그런 베비스를 사랑한 이가 바로 조시안 공주이다. 조시안은 아름답고, 정열적이고, 영리하고, 기지가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고 선택한 연인 베비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고, 또 종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역경과 위험을 무릅쓴다는 점에서 중세 문학에 종종 등장하는 소위 "구애하는 여성"(wooing woman)에 속한다(윤주옥, 「중세 문학에 나타난 치유자로서 여성 지식인」 31; Weiss 151, 153; Saunders, "Gender, Virtue and Wisdom" 162).

공주이자 왕국의 유일한 후계자인 조시안은 뛰어난 의술과 자연 마법에 대한 지식을 겸비했는데, 화자는 그녀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교육의 결과임을 밝힌다:

> 아르메니아에 있을 때 [조시안은]
> 내과와 외과술을
> 대 볼로냐와 톨레도 출신의
>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배웠는데,
> 그녀는 치유하게도, 아프게도 할 수 있는
> 많은 다양한 약초를 알고 있었다.
>
> While ȝhe was in Ermonie,
> Boþe fysik and sirgirie
> Ȝhe hadde lerned of meisters grete
> Of Boloyne þe gras and of Tulete,
> Þat ȝhe knew erbes mani & fale,
> To make boþe & bale. (lines 3671-76)[5]

중세에 이탈리아 볼로냐는 유럽 최초의 대학이 세워진 곳으로서 인문과학과 의학 교육으로 명성이 높았던 곳이고, 스페인의 톨레도(Toledo)는 아랍어로 전승된 의학, 철학, 천문학, 점성학 등 아랍 학문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던 곳이다(윤주옥, 「중세 문학에

나타난 치유자로서 여성 지식인」 32). 조시안은 그런 볼로뉴와 톨레도 출신의 위대한 학자들로부터 내과와 외과를 포함하는 의학과 본초학을 학습했다고 한다. 조시안이 내·외과의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일곱 개의 기본 인문과학을 모두 다 익혔음을 암시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 교육 과정에서 기초 인문 7과목을 모두 마쳐야 의학, 신학 등의 상급 과목으로 진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33).

조시안은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배운 의학과 본초학의 지식을 연인인 베비스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는데 사용한다. 그 예를 살펴보자. 어느 성탄절에 베비스는 아르메니아 왕의 부하들과 종교를 두고 언쟁하다 그들과 난투극을 벌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십 개의 깊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조시안은 부왕의 명령에 따라 직접 조제한 연고와 약물목욕으로 그 상처들을 완치시킨다. 치료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사가 아닌 공주 조시안에게 왕이 특별히 베비스를 치료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조시안이 보유한 뛰어난 의술을 가늠케 한다(636-736행).

조시안은 연인인 베비스와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에 원하지 않는 두 번의 혼인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혼인은 이교도 이보르 왕(King Yvor)과 이루어진 정략결혼이었다. 이때 조시안은 왕과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한다. 그녀는 어떤 약초를 캐먹는데, 그 약초를 먹은 조시안의 얼굴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진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3677-88행). 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오자 조시안은 연고를 사용하여 훼손했던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한다. 약초를 이용해서 얼굴을 바꾸고, 또 연고를 이용해서 얼굴을 쉽게 회복시키는 조시안은 영화『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폴리주스 마법약(Polyjuice potion)을 조제하고 마시는 헤르미온느(Hermione)을 연상시킨다. 영화 속 헤르미온느와 마찬가지로 조시안은 약초와 광물에 내재한, 일반인들은 모르는 초자연적인 힘을 배워서 알고 사용한다. 이 점에서 조시안이 사용하는 마법은 자연 마법에 속한다. 작품의 화자는 조시안이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마법을 두고 한 번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wicchecraft"나 "nigromauncy"로 부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조시안은

다음에 살펴볼 브론드와 명확히 구별된다.

로맨스『팔레르모의 윌리엄』의 남자주인공 윌리엄은 시칠리아(Sicily)와 아풀리아(Apulia)를 다스리는 왕의 아들이다. 윌리엄에게는 숙부가 한 명 있는데, 조카 대신에 왕이 되고 싶었던 그는 윌리엄이 네 살 되었을 때 유모들을 매수해서 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숙부의 계략으로부터 윌리엄을 구하는 늑대인간(werewolf)이 등장한다. 이 늑대인간은 원래 스페인의 왕자로서, 이름은 알폰스(Alphouns)이다. 알폰스를 늑대인간으로 만든 이가 바로 스페인 왕비이자 계모인 브론드이다. 화자는 브론드를 소개하면서 그녀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어휘인 "schame," "wicchecraft," 그리고 "nigramauncy"와 지속적으로 연결한다:

> 그 귀부인은 젊은 시절 많은 나쁜 것들을 배웠는데,
> 그녀가 온갖 주술을 아주 잘 알고 있어
> 더 이상 흑마술을 배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주술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대단했는데,
> 이 대범한 왕비는 브론드라 불렸다.

> ...þat ladi in ȝouþe hadde lerned miche schame,
> For al þe werk of wicchecraft wel y-nouȝ che couȝþe,
> nede nadde ȝhe namore of nigramauncy to lere.
> of coninge of wicchecraft wel wel y-nouȝ che couȝþe,
> & braunde was þat bold quene of burnes y-clepud. (lines 117-21)[6]

화자는 브론드가 젊은 시절에 많은 나쁜 것, 즉 온갖 종류의 주술("wicchcraft")을 습득해서 흑마술("nigramauncy")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화자의 이 설명에 따르면 브론드는 대단한 마법 지식을 소유한 여성이며. 그녀는 학습을 통해 그 능력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자는 포르투갈 공(prince of Portugal)의 딸인 귀족 여성 브론드가 어떤 마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것인지, 왜 그녀가 사용하는 마법이 부정적인 "wicchecraft"이자 "nigramauncy"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에 화자는 브론드가 전처소생인 알폰스 왕자를 늑대인간으로 만들어 추방하는 사건을 통해 그녀가 소유한 마법 지식이 왜 “wicchecraft”이자 “nigramauncy”일 수밖에 없는지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비록 출생 시에 생모를 잃기는 했지만 윌리엄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생기고 늠름한 왕자로 성장한다. 그런 윌리암을 지켜보던 계모 브론드는 어느 날 윌리엄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아들이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통렬하게 자각한다. 그리고는 의붓아들인 윌리엄에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해를 가해서 그가 적법하게 왕국을 다스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브론드는 이런 결심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때 자신이 갈고 닦은 마법 지식을 사용한다. 그녀는 주문이 들어간 마법을 사용해서 매우 강력한 효능을 가진 연고를 만들고는 그 연고를 윌리엄의 전신에 바른다. 그러자 곧바로 윌리엄은 모습이 늑대인간으로 변한다(136-40행). 브론드가 연고를 제조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기술은 앞에서 살펴본 모르간이나 조시안과 방법적으로 닮았다. 하지만 모르간과 조시안이 타인을 치료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고를 쓰는 반면, 브론드는 무고한 이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연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설령 방법적으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모르간과 조시안의 지식이 자연 마법에 해당하고, 브론드의 지식은 “wicchecraft”이자 “nigramauncy”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하듯이, 마법의 종류나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연 마법과 “nigramauncy”가 구분되는 것이다(Saunders, *Magic* 6-7, 155).

5.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는 서양 중세 사회가 마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마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과 관점 등을 가졌는지 문화사적, 지성사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 그 고찰에 기반하여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으로 쓰인 다수의 중세

로맨스/로망스 작품이 리터러시를 보유한 여성을 마법과 어떻게 연결 짓는가를 탐구해 보았다. 이 연구는, '왜 중세 로맨스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많은 이들이 여성인가, 왜 그녀들 대다수가 문자 능력, 곧 리터러시를 가진 식자들이며, 왜 그녀들이 사용하는 마법이 배움 혹은 학문(learning)으로부터 비롯되는가?'라는 연결된 질문들에 의해서 발아되었으며, 이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답해 보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연구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서양 중세의 학문 마법(learned magic)의 핵심이 되는 자연 마법이 남성 엘리트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점을 조명하고, 또 마법을 사용하는 중세 여성들을 악마와 내통하는 '마녀'(witch)로 동일시하는,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정형화된 편견을 조금이라도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 말은 중세 로맨스/로망스 저자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식자 여성을 항상 긍정적으로 그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모린 프라이즈(Fries 70)와 손덜스(Saunders, *Magic* 159)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자가 주장하듯이, 중세 로맨스/로망스에는 학문과 지식에 기반한 강력한 힘을 겸비한 여성에 대하여 남성 저자들이 느꼈을 위협 혹은 불안감이 감지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세 로맨스 문학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가장 강력한 마법을 행사하는 여성 인물인 모르간 르 페이가 학문 높은 스승이자 의사에서 악마적 주술사로 그 위상이 격하되는 과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2세기 『멀린의 삶』에서 모르간은 빼어난 미모와 함께 여러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여신적인 존재이다. 그녀는 모습을 바꾸는 능력을 가졌고, 본초(本草)에 달통하며, 자매들에게 과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학자이다. 또한 하늘을 날아서 유럽의 여러 도시에 언제든 출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의술을 겸비한 의사이다(윤주옥, 「상처와 치유에 대한 고찰」 162). 저자인 제프리는 텍스트 어디에서도 모르간의 지식이나 능력을 악마나 강령술과 연결짓지 않는다. 하지만 불과 삼십 년 뒤(c. 1180)에 중세 독일어로 쓰인 『에레크』에서 "페이무르간"(Feimurgan)으로 변한 모르간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순식간에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물 위를 걷고, 사람을 동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등 그녀의 마법은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이로운 일을 벌이기 위해서 악령들을 부리고 악마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녀의 마법은 금지된 악마 마법에 해당한다. 화자는 그러한 페이무르간을 루카누스의 『파살리아』(*Pharsalia*)에 등장하는 흉측한 마녀이자 죽은 이를 부활시켜 미래를 점치는 강령술사 에릭토(Erictho)에 비유한다(Larrington 11-12 재인용). 『에레크』는 모르간의 마법을 악마와 연결시킨 최초의 중세 로맨스이다. 그런데 일단 악마적 주술과 연결된 모르간의 마법은 중세 후기에 이르기까지 처음의 긍정적인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처럼 모르간과 그녀의 마법이 악마화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중세 저자들이 막강한 능력을 가진 여성 식자들을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중세 로맨스/로망스 작품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여성 식자들이 페이무르간처럼 마법으로 악령을 소환하거나 악마의 도움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Notes

1)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멀린 이야기』는 루퍼트 피킨스(Rupert T. Pickens)가 영어로 번역한 *The Story of Merlin*이며, 괄호 안 번호는 쪽수를 나타낸다.

2) 앞에서 언급한 7개의 기초 인문과학(liberal arts)을 의미한다.

3)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하느님인 성부(Holy Father), 성자(Holy Son), 성령(Holy Spirit)을 의미한다.

4)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블루아의 파르토놉』은 트람페 뵈트케르(A. Trampe Bödtker)가 1912년에 Early English Text Society(EETS)를 위해서 교감(edit)한 판본을 사용하였다.

5)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햄튼의 베비스』는 오이겐 쾰빙(Eugen Kölbing)이 1885-94년에 Early English Text Society(EETS)를 위해서 교감한 판본을 사용하였다.

6)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팔레르모의 윌리엄』은 월터 스킷(Walter W. Skeat)이 1867년에 Early English Text Society(EETS)의 Extra Series를 위해서 교감한 판본을 사용하였다.

인 용 문 헌

윤주옥.「중세 문학에 나타난 치유자로서 여성 지식인에 대한 고찰—메디컬 리터러시를 중심으로」,『영어영문학』31권 3호, 2026, pp. 23-45.

_____.「중세 아서 왕 문학에 나타난 상처와 치유에 대한 고찰」,『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34권 2호, 2024, pp. 137-70.

_____.「중세 여성의 문자 생활—영국의 마리 드 프랑스의 브레톤 레이를 중심으로」,『외국문학연구』49호, 2012, pp. 183-210.

피셔, 스티븐 로저.『읽기의 역사』. 신기식 옮김, 지영사, 2011.

호메로스.『일리아스/오디세이아』. 이상훈 역. 동서문화사, 2007.

Auerbach, Eri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lated by Willard R. Trask, Princeton UP, 1953.

Chaucer, Geoffrey. "The House of Fame."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edited by Larry Benson. Houghton Mifflin, 1987, pp. 347-74.

_____. "The Canterbury Tales."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edited by Larry Benson. Houghton Mifflin, 1987.

Chrétien de Troyes. *Arthurian Romance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William W. Kibler. Penguin Books, 2004.

Copeland, Rita. *Representing Women: Law, Literature, and Feminism*. Duke UP, 1994.

Crane, Susan.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Princeton UP, 1994.

Ferrante, Joan. "Male Fantasy and Female Reality in Courtly Literature." *Women's Studies,* vol. 11, 1984, pp. 67-97.

Fradenburg, Louise O. "The Wife of Bath's Passing Fancy."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vol. 8, 1986, pp. 31-58.

Fries, Maureen. “Female Heroes, Heroines, and Counter-Heroes: Image of Women in Arthurian Tradition.” *Arthurian Women: A Casebook*, edited by Thelma S. Fenster, Garland P, 1996, pp. 59-76.

Geoffrey of Monmouth. *The Life of Merlin*. Translated by Basil Clarke. 1973. Accessed 25 Jul. 2026, https://www.maryjones.us/ctexts/merlini.html.

_____. *Vita Merlini*. Accessed 25 Jul. 2026. https://www.sacred-texts.com/neu/eng/vm/vmlat.htm.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U of California P, 1992.

Kieckhefer, Richard. *Magic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P, 1989.

Lacy, Norris J. Preface. *The Story of Merlin (Estoire de Merlin)*. *Lancelot-Grail: The Old French Arthurian Vulgate and Post-Vulgate in Translation.* Vol. 2, translated by Rupert T. Pickens, D. S. Brewer, 2010, pp. v-vii.

Larrington, Carolyne. *King Arthur’s Enchantresses: Morgan and Her Sisters in Arthurian Tradition*. I. B. Tauris, 2006.

“Magik n. 1. a.” *Middle English Dictionary Online,* https://quod.lib.umich.edu/m/middle-english-dictionary/dictionary/MED26470/track?counter=2&search_id=314875.

McDonald, Nicola. “A Polemical Introduction.” *Pulp Fictions of Medieval England: Essays on Popular Romance,* edited by Nicola McDonald. Manchester UP, 2004, pp. 1-21.

Metzler, Irina. “Responses to Physical Impairment in Medieval Europe: Between Magic and Medicine.” *Medizin, Gesellschaft und Geschichte,* vol. 18, 1999, pp. 9-35

The Middle-English Versions of Partonope of Blois, edited by A. Trampe Bödtker, EETS, es. 109, A. Asher, 1912.

Ranft, Patricia. *Women in Western Intellectual Culture 600-1500*. Palgrave

MacMillan, 2002.

The Romance of Sir Beues of Hamtoun, edited by Eugen Kölbing, EETS, es. 46, 48, 65, Kegan Paul, Trench, Trübner, 1885-94.

The Romance of William of Palerne. edited by Walter W. Skeat, EETS, es. 1, B, Kegan Paul, Trench, Trübner, 1867.

Russell, Jeffrey Burton. *Witchcraft in the Middle Ages*. Cornell UP, 1972.

Saunders, Corinne. "Gender, Virtue and Wisdom in *Sir Bevis of Hampton*." *Sir Bevis of Hampton in Literary Tradition*, edited by Jennifer Fellows and Ivana Djorjevic, Boydell and Brewer, 2008, pp. 161-75.

_____. *Magic and the Supernatural in Medieval English Romance*. D. S. Brewer, 2010.

Shank, Michael H. "Schools and Universities in Medieval Latin Science."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Medieval Science*, vol. 2, edited by David C. Lindberg and Michael H. Shank, Cambridge UP, 2013, pp. 207-39.

The Story of Merlin (Estoire de Merlin). *Lancelot-Grail: The Old French Arthurian Vulgate and Post-Vulgate in Translation*, vol. 2, translated by Rupert T. Pickens, D. S. Brewer, 2010.

Strehlow, Wighard and Gottfried Hertzka. *Hildegard of Bingen's Medicine*. Bear, 1988.

Sweeney, Michelle. *Magic in Medieval Romance from Chrétien de Troyes to Geoffrey Chaucer*. Four Courts Press, 2000.

Tasioulas, J. A. "Science." *An Oxford Guide Chaucer*, edited by Steve Ellis, Oxford UP, 2005, pp. 174-89.

Weiss, Judith. "The Wooing Woman in Anglo-Norman Romance." *Romance in Medieval England*, edited by Maldwyn Mills et al., D. S. Brewer, 1991. pp. 149-61.

Abstract

Women's Literacy and Natural Magic in Medieval Romances

Ju Ok Yo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a range of medieval romances written in English, French, and Latin between the twelfth and fifteenth centuries associate magic with literate women. For this purpose, it first provides a broad historio-cultural and intellectual background of how magic was understood in medieval Western society and of the theories and perspectives through which it was conceptualized. The study first examines how female characters acquire magical knowledge. Rather than receiving magic secretly through inheritance or transmission, they learn it through courses of study associated with "the arts" or the "seven arts," terms that evoke the medieval curriculum of the liberal arts. It then considers what kinds of magic these women practice and for what purposes. Most of the magic they practice may be understood as natural magic, which draws upon the hidden properties of animals, plants, and minerals. What distinguishes such natural magic from harmful forms of sorcery or necromancy lies not necessarily in the type of magic practiced or the methods employed but rather in the purposes and intentions of those who practice it.

Keywords: medieval romances, literacy, women, natural magic, medieval education

논문접수일: 2026.9.15
심사완료일: 2026.9.30
게재확정일: 2026.10.08

이름: 윤주옥
소속: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메일: joyoon@gmail.com